

##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간 관계 특성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

연은모<sup>1</sup>, 최효식<sup>2\*</sup>

<sup>1</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sup>2</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Psychosoci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Eun Mo Yeon<sup>1</sup>, Hyo-Sik Choi<sup>2\*</sup>

<sup>1</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적 특성을 갖는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5,54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6.5%)',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2.0%)',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18.6%)',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31.2%)',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41.7%)'의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5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41.7%)'이 나머지 4개 잠재계층보다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 수준이 높았으며,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31.2%)'이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6.5%)',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2.0%)',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18.6%)'보다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관계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logical outcomes (school participation, self-esteem, and difficulty related to multicultural identity) depending on their perception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total of 5,540 samples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8 were analyzed b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best-fitting model identified five groups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1) father low-mother average (6.5%), (2) father average-mother low (2%), (3) father low-mother low (18.6%), (4) father average-mother average (31.2%), and (5) father high-mother high (41.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ne-way ANOVA, the father high-mother high (41.7%) group of adolescents showed more school participants and higher self-esteem and multicultural identity than the other profiled groups. The father average-mother average (31.2%) group of adolescents also scored higher than the other three groups (father low-mother average (6.5%), father average-mother low (2%), and father low-mother low (18.6%) of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improv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parent-child relationships would be important in improving psychological outcomes.

**Key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School Participation, Self-Esteem, Multicultural Identity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March 2, 2020

Accepted August 7, 2020

Revised March 26,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1-2].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자녀가 삶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보다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심리적 측면에서 [3-7]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동안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첫째, 주로 변인-중심적 접근 방법(예: 회귀분석,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학업성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지만,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이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자녀의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적 특성을 갖는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자아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1-2, 8-10]. 특히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기능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애착 이론에 따르면 정서 및 신체적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해 주는 양육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건강한 내적 표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 [11 재인용].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긍정심리자본,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1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자녀의 우울,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4-16].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 발달 과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자녀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7-18]. 아버

지의 양육참여 및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비행,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21]. 그동안 부모와 자녀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크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2, 22-23]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자녀의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24]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은 연구 [25]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자녀의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6-27].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변인-중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개인-중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 많은 연구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 간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적 특성을 갖는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1)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한다.
- 2) 분류된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다문화가족의 양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를 표본 추출과정에서 층화변수로 반영한 자료이다 [28]. 본 연구

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 변인의 데이터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54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부모-자녀 관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기초한 프로파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와와의 관계 관련 4문항, 어머니와의 관계 관련 4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한 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어머니)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  $\alpha=.91$ , 어머니  $\alpha=.90$ 으로 확인되었다.

### 2.2.2 학교생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관련 적응 및 학업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2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5점 Likert 척도('매우 잘 적응한다(1점)'~'전혀 적응하지 못한다(5점)'), 학업성적은 5점 Likert 척도('매우 우수한 편이다(1점)'~'매우 못한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한 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귀하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현재 학업성적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로 구성되어 있다[28].

### 2.2.3 자아존중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관련 3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한 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많은 장점을 가졌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5$ 로 확인되었다.

### 2.2.4 다문화가족정체성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1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5점 Likert 척도('매우 좋다(1점)'~'매우 싫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한 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귀하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

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구성되어 있다[28].

##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 데이터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자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2,777명(50.1%), 여자 2,763명(49.9%), 만 나이는 9세 1,081명(19.5%), 10세 1,017명(18.4%), 11세 761명(13.7%), 12세 560명(10.1%), 13세 478명(8.6%), 14세 430명(7.8%), 15세 367명(6.6%), 16세 330명(6.0%), 17세 356명(6.4%), 18세 143명(2.6%), 19세 17명(0.3%), 학교급은 초등학교 3,231명(58.3%), 중학교 1,339명(24.2%), 고등학교 970명(17.5%)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2,777	50.1
	Female	2,763	49.9
Child's age (yr)	9	1,081	19.5
	10	1,017	18.4
	11	761	13.7
	12	560	10.1
	13	478	8.6
	14	430	7.8
	15	367	6.6
	16	330	6.0
	17	356	6.4
	18	143	2.6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3,231	58.3
	Middle school	1,339	24.2
	High school	970	17.5

Table 2. Model summaries for latent profile model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2	110978.887	111144.381	111064.939	.869	.0000	.0000	44.8	55.2			
3	105930.201	106155.273	106047.231	.880	.0000	.0000	16.7	46.8	36.5		
4	100535.036	100819.686	100683.045	.908	.0000	.0000	7.0	44.6	16.7	31.7	
5	97941.291	98285.518	98120.278	.917	.0114	.0000	6.5	2.0	18.6	31.2	41.7

### 3.2 부모-자녀 관계 잠재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6)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8)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순이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형 적합도,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16], 5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계층이 6개인 모형과 7개인 모형은 추정에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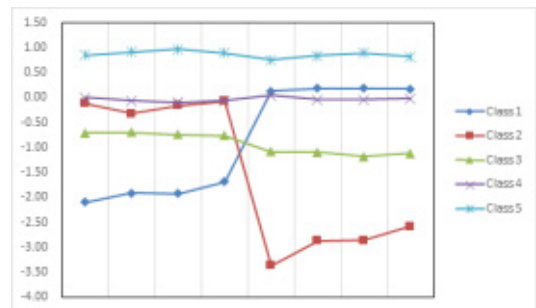
확인된 5개의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359명(6.5%)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은 만족스럽지 않은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은 아버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09명(2.0%)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은 어머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029명(18.6%)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731명(31.2%)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모두 평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2,312명(41.7%)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모두 만족스러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Class 1: father low-mother average group, Class 2: father average-mother low, Class 3: father low-mother low group, Class 4: father average-mother average group, Class 5: father high-mother high group

Fig. 1. Profile plot of latent classes

### 3.3 잠재계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

잠재계층에 따라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잠재계층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잠재계층 5집단(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이 나머지 4개 잠재계층 집단보다, 잠재계층 4집단(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이 나머지 3개 잠재계층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잠재계층 5집단(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이 나머지 4개 잠재계층 집단보다, 잠재계층 4집단(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이 나머지 3개 잠재계층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잠재계층 5집단(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이 나머지 4개 잠재계층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3. One-way ANOVA comparison of school participation, self-esteem, multicultural identity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F	Scheffé
School participation (School adjustment)	Class 1	359	4.17	.88	125.89***	1,2,3<4<5 2<1
	Class 2	109	3.88	.94		
	Class 3	1,029	4.05	.82		
	Class 4	2,312	4.33	.75		
	Class 5	1,731	4.64	.63		
School participation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359	3.18	.82	81.50***	1,2,3<4<5
	Class 2	109	3.11	.85		
	Class 3	1,029	3.07	.76		
	Class 4	2,312	3.36	.74		
	Class 5	1,731	3.59	.80		
Self-esteem	Class 1	359	3.70	.87	289.18***	1,2,3<4<5 3<1
	Class 2	109	3.63	.81		
	Class 3	1,029	3.41	.75		
	Class 4	2,312	3.90	.71		
	Class 5	1,731	4.34	.69		
Multicultural identity	Class 1	359	3.47	.91	149.46***	1,2,3,4<5 2,3<1,4
	Class 2	109	2.98	.91		
	Class 3	1,029	3.22	.78		
	Class 4	2,312	3.60	.82		
	Class 5	1,731	3.98	.92		

※ Class 1: father low-mother average group, Class 2: father average-mother low, Class 3: father low-mother low group, Class 4: father average-mother average group, Class 5: father high-mother high group  
\* p<.05, \*\* p<.01,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적 특성을 갖는 유형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속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에 기초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질의 프로파일을 확인한 결과 최적의 모형은 5개 프로파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은 전체의 359명(6.5%)이며,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은 아버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은 전체의

109명(2.0%)이며, 아버지와와의 관계 수준은 어머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은 전체의 1,029명(18.6%)이며,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잠재계층인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은 전체의 1,731명(31.2%)이며,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모두 평균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잠재계층인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은 전체의 2,312명(41.7%)이며,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모두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질의 프로파일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낮은 잠재계층뿐 아니라,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명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잠재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의 비율(2.0%)보다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의 비율(6.5%)이 더 높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중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관계의 질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1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1-2],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소통방법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5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이 나머지 4개 잠재계층보다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 수준이 높았으며,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이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보다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 어머니와 소통이 잘 되고, 부모-자녀 간 상호 이해를 잘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각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인식 및 수용 수준을 의미하는 다문화가족정체성 또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변인-중심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다문화지향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29-31].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점은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의 자녀가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과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의 자녀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자아존중감 수준 또한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발달 과정에 상호 구분되는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18]. 즉,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한 관계의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보다는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느낀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맺음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상적 삶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

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며, 변화 특성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하였는데,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5개 잠재계층별 대상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질의 프로파일은 '아버지 하-어머니 중 집단', '아버지 중-어머니 하 집단', '아버지 하-어머니 하 집단', '아버지 중-어머니 중 집단',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의 5개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5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버지 상-어머니 상 집단'이 나머지 4개 잠재계층보다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정체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더라도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관계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Q. Gao, R. Sun, E. Fu, G. Jia, Y. Xiang,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martphone use disorder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role of educational level", *Addictive Behaviors*, Vol.101, 106065, 2020. DOI: <https://doi.org/10.1016/j.addbeh.2019.106065>
- [2] S. J. Jeong, N. Y.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5, No.1, pp.121-145, 2018.
- [3] M. Jang, J. S. Chun,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family and culture", *Family and Culture*,

- Vol.25, No.4, pp.182-213, 2013.
- [4] H. H. Park, S. B. Oh, "A study of school adap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2, No.2, pp.35-57, 2014.
- [5] H. R. An, S. H. Yi, "Academic achievement: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0, No.1, pp.1-10, 2009.
- [6] S. H. Moon, M. K. Lee, M. J. Lee, H. J. Shim, H. H. Cho,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depress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4, No.4, pp.434-442, 2018.
- [7] I. S. Oh, "Relations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5, No.4, pp.219-238, 2014.
- [8] G. S. Ginsburg, P. Bronstein, "Family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Vol.64, No.5, pp.1461-1474, 1993.  
DOI: <https://doi.org/10.2307/1131546>
- [9] R. N. López Turley, M. Desmond, S. K. Bruch, "Unanticipated educational consequences of a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2, pp.1377-1390, 2010.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71.x>
- [10] J. G. Koo, J. S. Hwang, "The influence of family, school and mass media environment on adolescent's ego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4, pp.1623-1636, 2007.
- [11] A. Raudino, D. M. Fergusson, L. J. Horwood, "Th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is associated with poor adul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Vol.36, No.2, pp.331-340, 2013.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2.12.002>
- [12] H. Go,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effects of parent-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9, pp.637-664,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637>
- [13] E. J. Lee, H. S. Shin, "Children's emotion awareness and regulation as mediator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5, No.2, pp.293-312, 2016.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6.25.2.15>
- [14] S. M. Lee, W. Y. Chun,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upon child's ego-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2, No.1, pp.33-54, 2013.
- [15] J. C. Lee, "The effect of 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chool adaptability o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5, No.2, pp.877-897, 2019.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9.25.2.877>
- [16] E. J. I, C. W. Rhee,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impac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bond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9, pp.433-455, 2014.
- [17] E. Flouri, A. Buchanan,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4, pp.141-153, 2004.  
DOI: <https://doi.org/10.1348/000709904773839806>
- [18] E. Flouri, Z. Sarmadi, M. Francesconi, "P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child problem behavior from early childhood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58, No.4, pp.453-458, 2019.  
DOI: <https://doi.org/10.1016/j.jaac.2018.06.041>
- [19] F. M. Deutsch, L. J. Servis, J. D. Payne,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its effects on children's self-esteem and attitudes toward gendered rol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2, No.8, pp.1000-1024, 2001.  
DOI: <https://doi.org/10.1177/019251301022008003>
- [20] J. L. O'Gara, E. J. Calzada, S. Y. Kim, "The father's role in risk and resilience among Mexican-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90, No.1, pp.70-77, 2020.  
DOI: <https://doi.org/10.1037/ort0000394>
- [21] J. L. O'Gara, A. Zhang, Y. Padilla, C. Liu, K. Wang, "Father-youth closeness and adolescent self-rated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mental heal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04, pp.104386, 2019.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9.104386>
- [22] J. A. Park,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n adolescent's behavior problem, prosocial behavior and ego resiliency",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23, No.3, pp.75-92, 2019.
- [23] Y. S. Park, Y. S. Lee, S. H. Lee, T. O. Kim,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and filial pie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9, No.3, pp.505-542, 2015.  
DOI: <http://dx.doi.org/10.17286/KJEP.2015.29.3.06>
- [24] Y. J. Hong, M. K. Le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n anxiety,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10, pp.445-474, 2014.
- [25] S. J. An, H. C. Lee, J. Y. Lim,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2, pp.77-91, 2013.

- [26] Y. J. Nam, “The effect of multicultural characteristic, parent-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on emotional abilities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18, No.2, pp.1-17, 2014.
- [27] B. Y. Shin, H. S. Park, “Th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dult role model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on process of self effica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33, pp.1-24, 2016.  
DOI: <http://dx.doi.org/10.20993/SSW.33.1>
- [28] <https://mdis.kostat.go.kr>
- [29] H. J. Shin,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multicultural identity on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Korean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4, pp.597-604, 2019.
- [30] S. J. An, H. C. Lee, J. Y. Lim,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2, pp.77-91, 2013.
- [31] K. R. Choi, J. Y.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1, pp.347-374, 2018.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8.29.1.347>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